

■ 건강 칼럼

현대인에게 만성질환은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질병이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삶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큰 재산을 지녔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겠지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현대병이라는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병으로 명명되는 많은 성인병들인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암, 비만을 비롯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질병,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런 병들은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하게 생기는 것입니까?

진화생물학자인 앨라나 콜렌(Alanna Collen)박사는 '현대병의 진짜 원인은 장내 미생물'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기대수명이 80세 안팎으로 늘어난 4대 요인으로서 면역주사의 발견, 의료환경의 개선, 공공시설의 위생관리 개선, 폐니실린 등 항생제의 발견을 꼽았습니다.

1900년 선진국 사망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3대 사망원인은 폐렴, 결핵, 감염성 설사였는데, 2005년 선진국 전체사망률의 절반을 차지하는 3대 사망원인은 심장병, 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심장병, 암,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2030년에는 미국인구의 절반이 만성질환을 앓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앓을 것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나아가면 2044년에는 전체인구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보다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저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으니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자신할 수 있는 걸까요? 어느날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병이 그동안 내 몸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대병은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 병이 아

니라 우리의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긴 병입니다.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께 바꾸어 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증상은 호전될지 몰라도 병의 근원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만 먹어도 호전되던 증상이 날이 갈수록 약의 세기가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약을 더 복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과연 병을 고치는 옳은 방식일까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어도 어떻게, 무엇으로 바꾸어야 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AFH (Anti-Fragility Health)에서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현재건강상태를 정확하게 검사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될때까지 도와드립니다. 개개인에게 적합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제시하고 이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립니다.

우울증, 파킨스, 치매 등 약으로 고치기 힘든 병들도 약의 도움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저 증상만 없애는 치료가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알아내고 해결책을 찾아내어 그 뿌리를 치료함으로써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저의 클리닉의 미션이고 목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식사와 영양으로 관리하고 치료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AFH (Anti-Fragility Health)가 고객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먹고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을 유지하는지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Dr. Sung Hye Yi
President & COO
Anti-Fragility Health
www.anti-fragilityhealth.com
TEL (714) 864-3730
1020 S. Anaheim Blvd, #101
Anaheim, CA 92805



■ 법률 칼럼

유한책임회사 (LLC), 누구에게 적합한가?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원들 본인들이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이다. 내부적으로는 합명회사 (partnership; 2인 이상의 동업)와 상당히 비슷한 구조로 비교적 유연성 있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운영되면서도 사업 실패 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의 혜택을 받아 출자액 범위 선까지의 안전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설립 절차도 간편하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정관 작성을 제외한 설립 비용도 더 저렴한 편이며, 법인세 대신 소득세만 부과되는 일종의 도관과세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이중 세금에 대한 부담도 덜 한 편이다. 얼핏 들어보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권하는 형태의 사업체는 아니다. 왜 그럴까?

일단 필자와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법률 분야에 종사하는 입장이라면 LLC를 설립할 수 없다. 뉴욕을 비롯한 상당수의 주에서는 LLC 형태의 로펌이나 컨설팅 펌이 허용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전문직 면허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경우 LLC의 설립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들을 보면 PC (Professional Corporation) 혹은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단 법률업계뿐만 아니라 세무, 건축, 한의학, 병원, 부동산 중개업 등 대부분의 면허를 요구하는 전문직 사업의 경우에 비슷한 제한이 적용된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창업자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급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공적으로 회사를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투자자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며 재무 상태를 비공개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굳이 복잡하게 증권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

약 사업체를 크게 번창시켜 상장기업으로 발전시킨다든가, 그에 앞서 불특정다수의 피고용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한책임회사가 적합하지 않으며, 주식회사의 설립이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스타트업과 같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등의 임금 외 인센티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편인데, LLC의 형태로는 이런 보상 제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를 통해 임금을 지불받으며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다양한 부가급여를 제공받는데 익숙하다면 LLC가 부적합하다. 이는 LLC의 경우 일정 금액의 의료보험 외의 부가급여가 제한되어 있음은 물론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인 유한책임회사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창업할 당시에 사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약간의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합명회사와 비슷하다. 대표 업무 집행자가 대부분의 (혹은 전부의) 출자금액을 부담하며 그 외의 업무 집행자가 인력이나 기술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사업체 일정 부분의 소유주가 되는 조건으로 LLC가 설립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투자한 지분만큼 사업체의 소유 배분 비율이 나뉘더라도, 자본을 투자한 입장에서 100% 사업체의 소유주가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자치에 불만이 생기고는 한다. 물론 정관을 통해 경영 참여권과 지분 양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개인기업 (자영업) 형태에서 100%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직원을 영입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
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info@jlbridge.com
www.jlbridge.com
(949) 535-5275



CA Lns Lic # 0B18537

■ 은퇴 준비를 위한 재정계획 안내

최근에 은퇴하셨습니까? 곧 은퇴하실 계획입니까?

10%
즉석보너스

"과거의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중에는 손해 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철통같은 원금보장 덕분이지요"



401(K) Rollover
은행CD Account 이전

철통같은 보장성 연금플랜

증권시장의 위험성을 원천봉쇄하여 원금이 보장되며 Social Security 연금처럼 평생 마르지 않는 인컴이 보장되는 플랜

- Transfer: 은행CD, IRA Accounts
- Rollover: 401K, TSP등 각종 직장 은퇴플랜

* 직장을 옮긴 분들은 그 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Account를 하루 속히 옮겨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신천 보험·재정



714.323.7420
Email; choinsurance@yahoo.com

8308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